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군 민심 공략...경선 국면 준비

지역 경계 넘나든 확장형 vs 지역 밀착형

‘특별법’ 국회 통과 후 메시지 경쟁 예고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별시장 후보군이 설 명절을 맞아 광복 행보를 보였다.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 의원 등 대부분 주지는 광주와 전남을 넘나들며 텃밭 관리와 함께 확장성을 노린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주철현 의원 등 일부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지역 활동에 집중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군은 명절 연휴 동안 청취한 행정통합 민심을 토대로, 향후 본격화될 경선전을 의식한 선거 전략도 일부 공개했다.

대부분 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군은 거점 지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통합 대상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설을 앞둔 14일 광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을 시작으로, 15일 양동시장과 목포 청호시장, 16일 여수 서시장과 순천 옷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과 장보기를 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 내 시장 방문과 함께 구례·곡성·목포·영암 등 전남 각지를 순회하며 장터와 지역 행사장을 찾아 상인회와 주민들을 만났다.

신정훈 의원도 전남 나주 목사골시장, 광주 말바우시장·양동시장, 각화동 농산

물도매시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서 통합 특별법 입법 활동을 설명하고 농업인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준호 의원은 나주·목포·순천·해남·무안 등 전남 주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저인망식 유세를 펼치며 상인들과 유권자를 만났다. 현장에서는 산업 유치와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후보군은 확장성보다는 텃밭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설 연휴 동안 광주에 머물며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정치권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가는 대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타 시도 단체장들과 방송 대담을 이어갔다.

이개호 의원은 설 전날 정청래 당 대표

와 함께 사찰을 방문했고, 광주 양동시장 일정 외에는 대부분 지역구 내 명절 인사에 집중했다.

주철현 의원은 광양 증마시장과 여수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났고, 이순신대교 위에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제조업 침체와 경제 위기를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설 연휴 동안 별도의 민심 행보는 자제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이후 선거 전략을 준비했다.

이들 후보군은 명절 연휴 동안 청취한 행정통합 민심을 토대로, 향후 본격화될 경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분간 행정통합에 집중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국회 본회의는 오

는 26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후속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 사이 현역 시장과 도지사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면 그 직무가 정지되면서 통합 추진 등과 관련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지방선거 출마선언과 후보 등록 시기를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연휴 직후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뒤, 장흥·강진 등에서 경청투어를 이어가며 전남 지역 접촉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특별법안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의 통과 후 출마선언과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의원은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광주 중심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 이병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강화한 뒤 전남 순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동부권 산업 공약을 중심으로 세 확장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진행하고 있기에 강 시장과 김 지사의 지방선거 출마선언은 특별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 실무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이들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현안 설명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2호선 수완지하차도 폐지, 의견 묻는다

3가지 변경안 마련...수완지구 주민 설문조사, 최종안 결정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농협유통센터사거리~운남교차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대안으로 제시된 수완지하차도 폐지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18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노선, 공법 변경 등 3가지 설계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

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3공구가 지나가는 수완지구와 첨단지구 주민들이다. 13공구는 당초 설계된 저심도 공법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아직 공사조차 못하는 상태다.

본부는 현재 노선을 유지하되 공법 변경(저심도→대심도), 현재 노선 바로

옆에 있는 수완지하차도를 없애고 이쪽으로 노선 변경, 풍영정전 방향으로 노선 변경 등 3가지 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변경안에는 20년 가까이 주민들이 이용해온 수완지하차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완지하차도 폐지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광산구의회, 주민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부는 수완지하차도 폐지 등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설계 변경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수완지하차도 폐지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열어 변경안을 공개하고, 이어 설문조사를 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24년 말 착공에 들어갔지만, 13공구와 사업자를 찾지 못한 7·10공구는 공사조차 못 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도지사,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1위’

61.8%...지난달 보다 2.9%p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3일 공개한 “2026년 1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조사 응답자의 61.8%가 김 지사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58.9%보다 2.9%p 상승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17개 시도단체장 중 유일하게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 60%대를 기록했다. 여기엔 최근 진행 중인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55.6%를 2위를 차지했으며, 김진태 강원지사 52.1%, 김관영 전북지사 50.5%, 김



두겸 울산시장 50.3%, 박원순 경남지사 49.9%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작년 12월 29~31일 및 올 1월 29~31일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해당 월 기준·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3.3%이다.

통계분석엔 2개월 이동 시계열 자료본 석가법을 적용했으며, 통계보정은 작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가 봄철 건조한 기상 여건과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전남도, 봄철 산불 인명피해 ‘제로화’ 총력

산불조심기간 대응태세 점검...초기진화·주민대피 공조 강화

전남도가 봄철 건조한 기상 여건과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초기진화·주민 대피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협의회에선 전남도와 서부지방산림청, 순천·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산림청·소방·지자체 간 초기 진화 공조 △산불 인명피해 우려지역 단계별 주민대피 체계 구축 △주태과 주요 시설 보호 △유관기관 인력·드론 활용 예방·감시 강화 등이다.

특히 지난 1월 광양 육곡 산불(1단계 발령) 당시 주민 대피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 과정의 미비점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산불 대응 시

‘진화 체계’와 ‘주민 보호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현장 중심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 봄철 기존 상층과 강수량 감소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설성묘재 입산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철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따른 대형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중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주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부서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시간 단위 위험구역 권고에 따라 단계별 대피를 할 방침이다.

불이 번지는 화선 도달 5시간 이내 지역은 즉시 대피, 8시간 이내 지역은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분류해 대피 대기 조치를 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정선 광주교육감, 21일 출판기념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축적된 교육 경험 시민과 공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사진)이 교육현장에서의 고민과 성찰을 담은 저서 출판기념회를 전남 순천에서 연다.

이 교육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육 철학과 미래 교육 방향을 담은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육에 대한 고민을 지역 교육관계자 및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감은 취임 이후 약 3년 동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온 성찰의 과정과 향후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 축 관계자는 “그동안 나눠왔던 교육에 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 함께 가야 할 길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개호, 22일 광주서 정책비전 밝혀

4선의원 등 45년 정치 경력 담은 ‘...준비완료’ 발간

지방 행정의 일선에서 시작해 대통령직인수위, 중앙부처 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국정 전반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입증해 온 4선의 이개호 국회의원(사진)이 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정책 구상을 내놓는다.

이개호 의원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책 비전서 ‘이개호의 준비완료 -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한 비전과 구상’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의원은 저서는 31년의 공직 생활과 14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축적한 객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 실무적인 정책 보고서다.

이 의원은 책에서 “행정구역의 장벽에 갇힌 각자도생을 끝내고, 행정과 경



제를 하나로 묶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남광주특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첨단 AI 인프라를 융합하는 예나지·AI 대전환, 위기에 처한 전통 주력 산업(석유화학·철강·조선)의 고도화, 달빛철도와 고속철도망을 통한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7부에 걸쳐 제시했다.

이개호 의원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 역사적 과업에 정치적 소명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